일본 마츠시마 만 해양 무형유산: 위협 완화 및 기회 확대

앨린 딜레니
일본 동북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5

서론

본고는 일본 미야기 현의 마츠시마 만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연안 주민들과 어업협동조합 회원들이 보유한 해양 무형문화유산의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마츠시마 만은 적어도 조몬 중기(기원전 4000-2500)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해양 자원을 사용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정공원의 이름을 딴 마츠시마 만은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 1690년 이곳을 방문한 시인 바쇼(Basho)에 의해 유명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지역은 주변 육지의 높은 인구밀도와 해안에 밀집된 산업, 연안 공동체 내 인구학적 변화, 그리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야기된 쓰나미의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시련들로 인해 해양무형유산과 함께 공동체와 삶의 방식도 위험에 처했다. 무형유산이 사회적 결속과 포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때, 무형문화유산의 소실은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풍습과 의식, 축제는 현지 문화와 환경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강화함으로써 연안 공동체의 삶의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두 개 공동체의 해양행사인 '미나토 마츠리(Minato Matsuri)'와 '하마 오본(Hama O-bon)'이 소개될 것이다.

해양무형유산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어부-삼림(fisher-forests)'과 '사토-우미(sato-umi)'라는 지역적 개념을 살펴보고. 어부들의 지역 생태지식과 함께 회복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는 연안 공동체 활동의 사례들을 보여줄 것이다.

마츠시마 만

마츠시마 만 지역의 육지와 바다경관은 수 세기 동안 독특한 문화와 생계방식을 만들었다. 이 지역은 해양과 연안자원이 풍부하고, 바다는 생계와 삶의 방식의 근간이 된다. 이 지역은 또한 법에 의해서도 보호받고 있다(문화재보호법).

관광은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4년에는 일본 국내외 여행객이 약 840만 명에 달했다(미야기현 2016). 어업과 양식 부문은 마츠시마 만 주변에서 발견되는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고고학적 발굴로 이 지역에서 70개 이상의 패총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약 6천여 년 전 이미 이 지역이 사토우미 공동체의 거주지였고, 주민들은 생선과 지금도 이 지역에서 흔히 소비되는 굴과 대합 등의 조개류를 채취했음을 보여준다(오쿠마쓰시마 조몬무라 역사자료관 2002). 이곳에서 발굴된 도자기는 당시 소금생산 문화도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마츠시마 만의 얕고 잔잔한 바다 덕분에 사람들은 굴과 해초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이것은 마츠시마 만의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의 형성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사진1. 마츠시마 해안 전경©앨린 딜레니

마츠시마 만의 굴양식은 전근대 시기에 시작되었고 그 역사는 멀리 17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미야기현 1994년). 해초(김과 미역, 노리와 와카메) 재배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시작했지만 전후에 규모가 급격히 늘었다(미야기현 1993년, 1995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굴과 해초(김)는 일본에서도 최상품으로 간주된다. 마츠시마 만의 생산물이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긴 하지만, 마츠시마 만은 한때 국제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다양한 어종이 소규모 어부들에 의해 잡혔다. 마츠시마 만에는 거머리말(아마모)도 풍부한데, 이 지대는 산란과 치어를 위한 장소를 제공해 흔히 '바다의 요람'이라고 불린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야기한 쓰나미(3.11)는 마츠시마 만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쓰나미는 집과 양식시설, 선박을 쓸어갔을 뿐만

아니라 거머리말도 뿌리 뽑아(90%가 파괴) 해양환경에 생태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연의 복원력이 더해져 어업과 양식업이 회복되었고, 한 굴 양식장 주인은 "마츠시마 만에는 좋은 품질의 해초가 많이 자라서 좋은 '수프(soup)'를 만들기 때문에, 만 내부에서 자란 굴은 매우 맛이 좋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Minohara & Blasiak 2018).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이러한 연안, 해양지역에서는 어업과 양식업이 식량안보, 생계와 복지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문화유산과 공동체 결속의 중요한 특징도 형성한다는 점이다(Coulthard, Johnson & McGregor 2011; Minohara & Blasiak 2015).

어업,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 문화

연안환경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든 논의는 필수적으로 해양무형유산과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에 대한 관심을 포함해야 한다.

일본에서 어업과 양식업으로의 진입은 지역 및 중앙정부에 의한 어업권과 조업허가증의 발급에 의해 제한된다. 연안 어업에서, 어업권은 어업조합(FCA)들에 의해 관리되고, 현지 주민이어야만, 또 최소 조업기간 동안 조업에 참여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만 조합의 어장에서 어업 및 양식업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어업과 양식업을 계속하는 한 하나의 생산경관 및 해양경관(SEPLS)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소수의 신규회원을 제외하고, 이 지역 어가의 대부분은 수 세기 동안 이러한 활동에 종사했다.

이 지역에는 다양한 현지 축제와 활동이 열리는데, 이들은 더 넓은 일본 문화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육지 및 해양경관과 사회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생겨난 고유한 풍습과 의식들이다. 여기에는 미나토(항구)축제, 하마(해변)오본이 있다. 미나토축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어업을 되살리고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카미(kami)가 이동식 신사에 안치되고, 시오가마 신사(Shiogama Shrine)에서 나와 배에 태워진 뒤, 시오가마와 마츠시마 만 일대를 도는 신토(Shinto) 의식이 포함된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시오가마 신사에서 하나부

치 신사(Hanabuchi Shrine)로 배를 타고 방문해 공물을 바쳤던 선례에서 비롯된다(시치가하마(Shichigahama); 2400년의 역사).

미나토 마츠리는 토착 신토 '종교'의 측면이 있고, 다음으로 논의될 의식은 불교적 측면이 강하다. 오본은 일본인들이 조상들을 기리는 '망자의 날'이다. 이것은 보통 8월 중순에 3일간 열린다. 한편, 하마-오본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열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해안에 밀려온 신원미상의 사망자에 대해서도 함께 제사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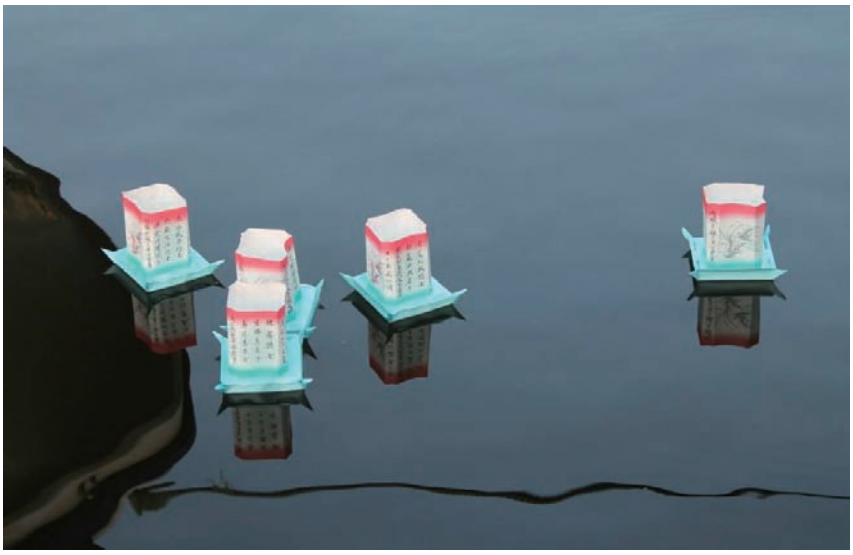

사진2. 하마 오본(Hama O-bon) 기간에 영혼을 보내는 의식©앨린 딜레니

이런 구체적인 문화유산 축제와 의식들 외에도, 해양무형유산은 환경적 측면도 포함한다. 사회생태적 생산경관 및 바다경관은 보통 일본어로 사토-우미라고 불리는 것을 포함한다. 사토-우미는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물학적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증가한 해안지역이다. 일본어로 '사토'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고, '우미'는 바다를 의미한다. 사토-우미는 어업과 상품의 유통을 통한 문화와 문화교류를 지원해 온 중요한 해역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연과 인간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생태적 시스템이다. 이들은 주로 생물학적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들이다. 이곳이 사토-우미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물질 순환, 생태계, 인간과의 접촉, 세력권과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들 중 많은 곳에서 어부들이 산림운동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1980년대 시작되었다. '숲은 바다의 연인'(미야기 현) 운동은 처음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산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접근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부 지역은 오늘날 한 해는 산에서 나무를 심고, 다음 해는 해변을 청소하며 상호원조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해양무형유산은 SELPS와 사토-우미에서 보여지듯 3월 11일 대지진 동안 이 지역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노하라&블라시악(Minohara&Blasiak) (2015)은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츠시마 만의 우라토(Urato) 섬은 어떻게 사망을 최소화했는지, 그리고 피해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SEPLS와 문화적 연결이 수행한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저자들은 2011년 재앙 이후 수년간 SEPLS의 회복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후변화와 극심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거라는 점에서 재앙에 맞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

전 세계 다른 지역(예, 저자가 17년간 거주한 덴마크)에 비해 일본에서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해양무형문화유산은 현재 위기에 처해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와 삶의 방식도 위기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형유산은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형유산의 소실은 이들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풍습과 의식, 축제 행사들은 연안 공동체 주민의 삶을 구조화하고, 지역문화와 환경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강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와 풍습들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해양 무형유산은 또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회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고는 '어부-산림'과 '사토-우미'라는 지역적 개념도 살펴보고 어부들의 지역 생태지식과 더불어 회복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지원하는 연안 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오늘날 시민운동과 환경교육 캠페인을 통해 보여지는 이러한 활동들은 더 넓은 사회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인 행동(예, 거머리말 심기)을 통한 환경보존에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도 1. 일본과 도호쿠 지역 (위키피티아)

지도 2. 도호쿠 미야기현의 마츠시마만 지역 (출처: Minohara, Cooling, and Blasiak 2018)

참조문헌

Coulthard, S, Johnson, D & McGregor, JA 2011, 'Poverty, sustainability and human wellbeing: A social wellbeing approach to the global fisheries crisi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vol. 21, no. 2, pp. 453-463.

Minohara, A & Blasiak, R 2015, 'Socio-ecological linkages in Japan's Urato Islands', Satoyama Thematic Review, vol. 1, pp. 29-36.

Minohara, A., Cooling, C. and R. Blasiak 2018. Coastal communities and livelihoods in a changing world: A comparison of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 in Matsushima Bay and the Salish Sea" Chapter 10 in Satoyama Initiative Thematic Review Volume 3 (pp.102-113). United Nations University.

Miyagi Prefecture 1993, Traditional fishing gears and fishing methods in Miyagi Prefecture – Seaweed (nori) (in Japanese), Miyagi, Japan.

Miyagi Prefecture 1994, Traditional fishing gears and fishing methods in Miyagi Prefecture – Oysters (in Japanese), Miyagi, Japan.

Miyagi Prefecture 1995, Traditional fishing gears and fishing methods in Miyagi Prefecture – Seaweed (wakame) (in Japanese), Miyagi, Japan.

Miyagi Prefecture 2016, Matsushima Bay - Journey Through 1,000 Years of History (in Japanese), Miyagi, Japan.

Murray, V. and Ebi, K.L., 2012. IPCC 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SREX).

Okumatsushima Jomon-mura History Museum 2002, Satohama Shell-Mounds (in Japanese), Miyagi, Japan.